



재경임실군민회,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 전달

임실군이 재경임실군민회가 지난 8일 2025 임실N치즈축제 현장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50여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10여 명의 회원이 직접 축제 현장을 찾아 기탁식을 진행하며 고향에 대한 따뜻한 정을 나눴다.

재경임실군민회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임실 출신 인사들의 대표 향우 단체로, 매년 다양한 교류와 화합 행사를 통해 고향과 향우회원 간의 유대를 이어 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조성된 기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경여고, 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서 11개 분야 석권

익산 활동권에 소재한 진경여자고등학교(교장 유선희)가 최근 열린 '제18회 전북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서 11개 종목에 출전, 대상과 그랑프리상을 포함해 총 61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메이크업 등 70여 개 세부 종목에서 경연이 펼쳐졌다.

이 가운데 헤어미용 분야 프레스디지컬과 종목에 참가한 토탈뷰티과 3학년 이수영 학생이 학생부 전체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학과 간 융합 학점제 수업을 통해 네일미용 기술을 연마한 조리재봉과 2학년 이한별 학생이 평면아트 종목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운봉읍, 18일 오후 5시 영화 소풍 무료 상영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오는 18일 오후 5시, 서립공원 야외극장에서 영화 소풍을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 상영은 깊어가는 가을밤,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남원관광협의회 리플라스사업단 주관으로 기획됐다.

소풍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과 사람 간의 따뜻한 관계를 담은 작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영화 상영에 앞서 추천 연리지 붕기타팀(김재하 외 1인)의 공연이 펼쳐지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며, 쌀소비 축진을 위해 운봉농협이 후원한 빵튀기 간식이 관람객들에게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서립공원은 운봉읍을 대표하는 쉼터로,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동해시 여성단체, 자매도시 화합의 장 마련

김제시(시장 정서주)는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영순)가 16일 ~ 17일, 1박 2일간 자매도시인 동해시 일원에서 동해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행숙) 회원 등 50여명과 함께 친선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와 동해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여성단체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념행사를 통해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 주요 관광지를 함께 견학하며 상호 이해를 높였다.

또한 소풍시간을 통해 여성단체 간 의견을 나누고 향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제시와 동해시는 1999년 최초 결연을 맺고, 2018년 여성단체 간 자매도시 협약 이후 매년 양 지역을 상호 방문하며 지역 특산물 및 문화·관광 홍보 등 다양한 분야를 서로 공유하며 여성단체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시는 지평선 쌀과 여성단체에서 직접 담은 고추장을, 동해시에서는 코다리 말기트와 떡 등 상호 지역특산물을 홍보했으며 여성단체 간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통해 여성단체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소아암 어린이 위해 사랑의 헌혈증 전달

하림,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 정기 기부로 확대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소아암 어린이가 치료를 위해 임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헌혈증서 500장을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진행된 헌혈증 전달식에는 하림 지속경영팀장 일행이 참석해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헌혈증 기부는 저출생·고령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헌혈자가 10년 전보다 약 25% 감소한 데에 따른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림은 지난 10여 년간 임직원들이 기탁한 헌혈증서를 기반으로 '헌혈증서 정기 기부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이날 전달된 헌혈증서는 프로그램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협회를 통해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아들의 치료와 수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하림의 정기 기부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해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7년간 매년 500장의 헌혈증서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이후에도 매년 임직원들이 기증한 약 300장의 헌혈증서를 전달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주)하림 정호석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헌혈증이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으로 기부하고, 이후에도 매년 임직원들이 기증한 약 300장의 헌혈증서를 전달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주)하림 정호석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헌혈증이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존경과 감사를 담아”... 익산시, 노인의 날 행사 개최

익산시에서 지역 발전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행사가 열렸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경로효친 사상 확산을 위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지회장 류창현) 주관으로 개최됐다. 현장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어르신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선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기념식과 축사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운동경기와 공연, 기념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흥겨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류창현 지회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익산시에도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오래 세월 동안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시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통합돌봄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 특화 일자리 작업장 운영 등 어르신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다"며 "우리 시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통합돌봄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 특화 일자리 작업장 운영 등 어르신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장수읍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장수군은 지난 15일 장수읍 의암공원 야외무대에서 어르신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장수읍 장수읍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가 주최하고 장수읍자율방범대가 주관했으며,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내빈소개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고촌마을에 거주하는 신순옥(87세) 어르신이 모반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박수를 받았다.

2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신나는 예술스타 공연이 펼쳐져 풍물과 트로트, 미술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로 흥을 돋웠으며, 이어진 노래자랑과 경품추첨으로 행사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무대에 오른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환한 웃음 속에 관객석에서는 큰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유상일 대한노인회 장수읍분회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 향교동, 21일 향기나눔 건강프로그램 개최

남원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현복)는 오는 10월 2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부근)와 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체 1일 1가구 소풍행정과 연계한 향기나눔 건강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마음을 살피는 시민중심 역동적 소풍행정 구현의 취지를 이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건강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그램은 △레몬향 비누 만들기 체험 △진강삼당 및 혈압·혈당 측정 △우울증 선별검사 △정신건강 상담 등 마음과 몸의 균형을 돌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체험 후에는 향긋한 비누와 건강인쇄물이 담긴 '향기나눔 선물 보따리'가 제공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동면, 진드기 매개 감염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

남원시 산동면은 최근 본격적인 추수철을 맞아 1일 1가구 소풍방문을 통해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과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관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방문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혜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질환(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유인물 전달,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을철 추수기를 맞아 야외작업이 증가로 예방을 위한 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중기중앙회, 제2차 '청년·미래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청년·미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출범한 청년·미래위원회는 창업 10년 미만인 초·중기 중소기업 대표와 연구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창업지원 제도 개선과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일한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가 '창업지원 제도 심사평가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창업지원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학범 청년·미래위원장은 "우리나라 창업지원 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왔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단순한 예산 확대와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지원 제도의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위원회 논의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7일 한국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창업생태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회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정책의 질적 향상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었으며, 청년 창업과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기자



전주 혁신동, 남원 웃칠공예관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동장 안성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상훈)는 지난 14일 혁신동 동네복지허브화사업의 정기가부에 동참한 남원시 웃칠공예관(무형문화재 웃칠장 박강용)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남원시 웃칠공예관을 찾아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한 웃칠장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판을 전달하였다.

착한가게란 수익금의 일정 금액(3만 원 이상)을 매월 기부하는 정기가부 캠페인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박강용 무형문화재 웃칠장은 "관내 이웃을 넘어 애정하는 전주 혁신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웃칠을 할 때 7번의 덧칠과 수백 번의 사포질을 통해 한 작품이 만들어지듯 착한가게 한곳 한곳이 모여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명품도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함께 동참해주신 남원시 웃칠공예관과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계속 기부해주시는 착한가게 사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사협 위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 명품도시라는 작품을 빛내겠다"고 말했다. /권희성기자



남원 죽항동, 바다장어구이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

남원시 죽항동 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접숙 동장, 김영권)는 1일 1가구 소풍행정을 통해 발굴된 기장 바다장어구이(대표 장연석)에 착한가게 32호점 현판을 전달하였다.

착한가게 업체의 정기기부는 나눔에 동참한 다른 후원자들의 재원과 함께 우리 죽항동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나눔·공유 사업에 소중한 역할이 되고 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장어구이 장연석 대표는 "앞으로도 죽항동을 위한 여러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으며, 김영권 민간위원장은 "함께 해주신 착한가게는 동 지역 성장과 회복의 다짐들이 되고 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임접숙 죽항동장은 장연석 대표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지역사회보장 사업 확대를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